

호주 국외시찰 보고서  
(12. 12. 10. ~ 12. 18.)



# 국외(호주)출장 보고서

## - 호주 교정기관 의료처우 실태 파악 -

교 정 본 부

2013. 1.



# 교 정 본 부

# 차 례

I. 국외 시찰 개요 .....	1
II. 실버워터 복합 교정시설 시찰 .....	2
1. 시설 일반 .....	2
2. 의료 처우 .....	4
III. 메트로폴리탄 리멘드 센터 시찰 .....	6
1. 시설 일반 .....	6
2. 의료 처우 .....	8
IV. 포트 필립 교도소 시찰 .....	9
1. 시설 일반 .....	9
2. 의료 처우 .....	12
V. 맺는 말 .....	13

# I . 국외 시찰 개요

## 1. 시찰 국가 및 교정시설(3개 기관)

- 시드니 : 실버워터 복합 교정시설(Silverwater Correctional Complex)
- 멜번 : 메트로폴리탄 리멘드 센터(Metropolitan Remand Center)
- 멜번 : 포트필립 교도소(Port Phillip Prison)

## 2. 시찰기간

- 2012년 12월 10일(월) ~ 12월 18일(화), (7박 9일)

## 3. 시찰목적

- 호주 교정시설 참관을 통한 교정행정시스템 전반에 관한 이해 제고 및 뉴사우스웨일즈 주, 빅토리아 주의 수용자의료처우 실태 연구

## 4. 시찰단 구성

- 단 장 : 대구지방교정청 의료분류과장 서기관 노○○
- 총 무 : 법무부 교정기획과 교 위 황○○
- 단 원 :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교정관 조○○  
천안교도소 교 감 송○○  
안동교도소 교 위 김○○

이상 5명

## II. 실버워터 복합 교정시설(Silverwater Correctional Complex) 시찰

### 1. 시설 일반

- 실버워터 복합 교정시설(Silverwater Correctional Complex)은 실버워터 교도소(Silverwater Correctional Center), 실버워터 여자교도소(Silverwater Women's Correctional Center) 등 4개의 별도 시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중 하나인 MRRC(the Metropolitan Remand & Reception Center)를 방문하게 되었음
- MRRC는 1997. 7월 개청된 교정시설로서, 비교적 중범죄를 저지른 수용자 935명을 수용하고 있음. 수용자의 죄명별 구성은 강도, 테러범 등 중범죄를 포함하여 다양한 범죄자가 포함되어 있고, 정상적인 수용자에서 수용자 보호 차원에서 혼거가 부적당한 수용자, 정신질환자<sup>1)</sup>(약 36%)까지 다양한 수용자가 구성되어 있음
- 직원 수는 348명으로서 제복 직원(uniform)은 291명(correctional officers 276명, industrial officers<sup>2)</sup> 15명)이며, 비제복(non-uniform) 직원은 57명임, 임상심리·분류심사등 전문적인 영역은 비제복 직원이 담당하고 있다고 함
- 시설 참관을 위해서 엄격한 검신 절차를 거쳐야 했고, 특히 사진촬영은 허용되지 않아 카메라는 두고 들어 가야 했음. 호주의 경우 방문하는 모든 교정기관에 공통적인 사항이었음
- 보안 정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눈을 기계에 대어 홍채 인식과정을 거쳐야 했고 기계에 LG라는 국내 기업 마크가 붙어 있어 뿌듯함을 느꼈으며, 우리 교정시설의 경우 제복을 입고 정문을 출입할 경우 별도

1) 정신질환자는 사리분별이 어려운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범위의 질환(우울증 등)을 가지고 있는 수용자를 의미함

2) 우리의 직업훈련교사에 해당하는 용어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정문 근무 직원의 인지에 의해 정문 출입 허용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규 직원들이 많이 채용되었을 경우나 이송 담당 직원 출입이 빈번한 경우 보안상 허점도 발생할 수 있기에 홍채 인식 등 보다 과학적인 장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시찰시 우리를 직원들에게 소개할 때 'KOREA'라고 말하면, 잘 모르다가도 '싸이, 강남스타일'라는 말만 나오면 금방 신나는 표정으로 나도 안다며 춤을 춰 보기도 하는 등 웃으면서 엄지손가락을 올리며 대하는 것을 보고 '문화의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음
- 교도작업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작업이 있었는데, 그 중 구내 시찰시 퀀타스 항공 이어폰을 납품하고 있는 공장을 방문할 기회를 갖기도 하였음. 공장 시찰시 일부 수용자는 공장내 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하고 있었으며, 전화사용의 경우 직원들도 핸드폰을 소지할 수 없으며 아이디카드 등을 이용하여 동일한 전화기로 전화를 할 수 있다고 함
- 호주는 국토 면적이 넓어 수용자 이송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등 다소 간단한 재판의 경우 화상시설을 이용한 재판을 널리 활용하고 있는 점이 인상 깊었음
- 수용자 호송차 내부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처럼 일반 버스와 같은 구조에 창문만 철격자를 설치하여 직원과 수용자가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냉동차처럼 생긴 구조에 직원은 운전석에만 착석하고 별개로 분리된 한 라인에 2~3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5~6개 라인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서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나 폐쇄 공포증이 있는 경우 이송가는 것이 두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호송차량 내부 구조>

조수석	수용자 (2~3인)	수용자	수용자	수용자	수용자
운전석					

- 우리에게 교도소 구내 곳곳을 안내하는 직원의 이름은 샘이었는데, 지나가는 직원들과 스스럼없이 장난치고 이에 대해 직원들도 웃으면서 즐겁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하위 직급의 직원으로 알았지만 나중에 얘기하는 중 자신의 계급이 교도소 내 6명 안에 들어간다고 하여 우리의 경우 보안과장 정도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음
- 수용자들에게도 스스럼 없이 대하였고, 우리와 달리 수용자들이 구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도 있었지만 샘과 우리가 지나가면 담배를 손으로 가리고 깎듯하게 예의를 갖추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놀라웠음

## 2. 의료 처우

- 신입 수용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질병 여부, 정신질환 등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면밀히 분류하여 과학적 처우를 하고 있다고 자랑함

실제로 이러한 시스템을 잘 활용하여 자살 방지 효과가 있다고 하며 다만 부득한 경우 자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위를 조사하는 점에서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으며 해당 직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된다고 하며 별로 대수롭지 않게 대답함

- 테러범, 다른 사람을 위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혹은 자살 우려가 강한 자의 경우 CCTV가 설치된 방에 수용하여 24시간 감시하는 점도 우리의 실정과 유사함
- 약품 투약에 있어서는 간호사가 약품을 주고 복용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며 간혹 가다 약품을 숨기거나 나중에 복용하겠다고 하며 확인절차를 거부하는 수용자가 있다는 점은 우리와 비슷함
- 다만 국민성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느낀 점은 호주의 경우 수용자의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 강하게 압박하거나 자유를 많이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규정을 하나라도 여기는 경우에 예외 없이 집행한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음

우리의 경우 법규정이나 지시공문대로 업무수행시 사실상 생활이 힘들 정도로 자유의 제약이 심한 반면 수용자가 반발할 경우 일선 현장에서 속칭 '유도리'를 발휘하여 융통성 있게 근무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반면, 호주의 경우 단호하게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대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구내 시찰을 하는 소장도 우리와 똑같이 검신 절차를 거치는 등 상하관계를 떠나서 무조건 원칙에 의하는 고집스런 업무 방식은 본받을 만 하다고 생각함

- 정신질환의 정도가 심한 수용자의 경우 집중치료센터에서 치료와 상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 구조는 수용거실이 복층구조로 4각형 건물 내 3면으로 둘러싸고 있고, 수용자 한 두명씩 건물 가운데로 불러내어 임상심리전문가와 수용자 간 상담을 하는 형태였음

상담하는 전문가들은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들의 걱정과 달리 남성 수용자를 상담하는 모습이 이채로웠으며 또한 여성 교도관

들이 남성수용자를 동행하는 모습 역시 놀라웠고 혹시 위험을 느끼지 않는가라고 묻자, “시드니 밤거리 보다 여기가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하여 일행 모두 폭소를 터뜨렸음

### III. 메트로폴리탄 리멘드 센터(Metropolitan Remand Center) 시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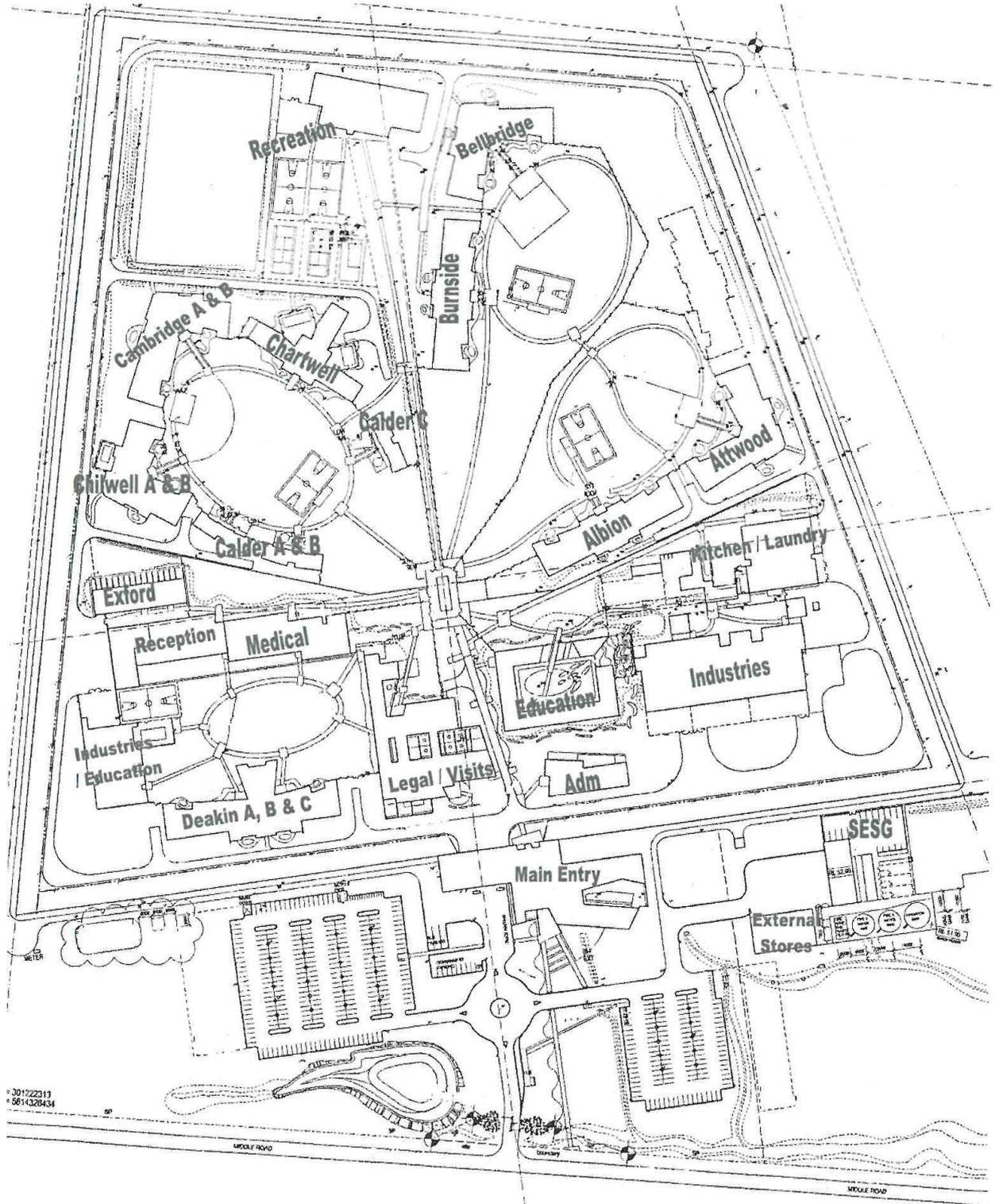
#### 1. 시설 일반

- 수용정원 673명의 교정시설로서 비교적 단기형 혹은 미결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시설은 크게 4개의 구역으로 나뉘고 구역마다 몇 개의 사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동은 우리처럼 1동, 2동으로 지칭하지 않고 Albion, Attwood 등 이름을 만들어 부르고 있었음
- 조감도에서 보듯이 구내 모든 구역은 중앙 통제 센터와 연결되어 있어 오직 중앙 통제 센터를 통해서 모든 수용자, 직원이 이동가능하도록 하여 통제하기 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
- 우리의 소장에 해당하는 직급인 GENERAL MANAGER는 여성이었고, 그 외에도 많은 여성들이 간부로 활동하고 있었음

우리는 왜 이렇게 여성이 많냐고 물어보았는데, 웃으면서 종종 그런 질문을 받는다고 대답하였으며 임상심리 전문가로서 외부에서 특별채용되었다고 답변하였으며 우리와 같이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기 위해 젊은 시절부터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승진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약간 낯설게 느껴짐

- 중앙 통제 센터에 가보니 실제로 모든 활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수용자는 해당 구역내에서는 자유롭게 운동하거나 잡담을 나눌 수 있었으며 우리는 구역을 분리하고 있는 펜스를 수용자가 뛰어넘으면 어떻게하는가를 걱정했지만, ‘굳이 다른 구역으로 넘어갈 필요가 뭐 있는가’라고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대답함

<시설 조감도>



우리와 같이 수용자를 항상 계호하는 상황이 아니고 일정 구역내에서 거의 자유를 주고 있는 호주의 교정시설 운영상 우리의 의문이 오히려 이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교정행정에 관한 대화 중>



<시찰 마친 후>



## 2. 의료 처우

- 실버워터 교정시설에서 이미 시찰했던 모습과 비슷한 형태로서, 수용자가 새로 들어올 경우 철저한 분류 및 검사를 통해 질병은 물론 정신질환에 따라 분리하여 처우하고 있었고 자살우려자의 경우에도 대체로 미리 선별하여 관리하고 있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하였음
- 의료과(medical center)를 둘러보니, 마치 병원처럼 여러 방이 있었고 그 안에서 의사 혹은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와 수용자가 1:1로 상담을 하고 있었음

우리의 경우 의사 자격을 가진 직원을 경력채용하고 있지만, 호주의 경우 몇 명의 의사가 외부에서 교대로 교도소에 출장나와서 근무하는 형태임

- 특히 여성 전문가와 수용자가 별개로 분리된 방에서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보안상 걱정이 되지 않는가를 질문하였지만 수용자가 자신이 필요하여 상담을 받으러 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그래도 만일 비상상황 발생시 허리에 찬 호출기를 누르면 옆에 있는 제복직원이 달려온다고 하였음

우리의 경우 특히 여성교도관과 남성 수용자가 1:1 대면으로 상담을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것도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상황일뿐 안 되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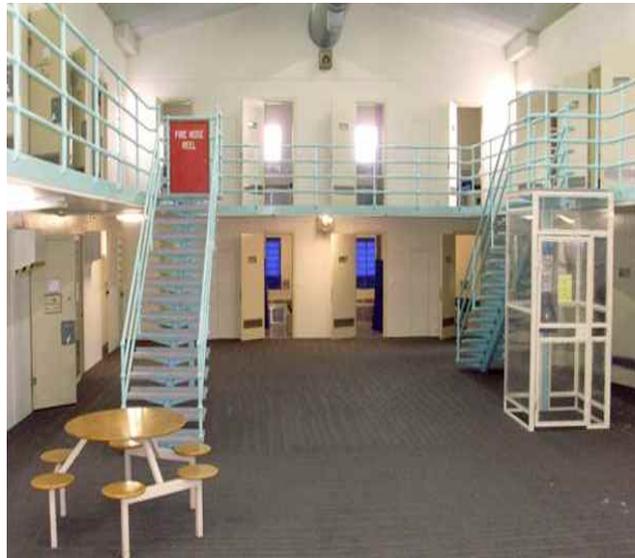
#### **IV. 포트 필립 교도소(port phillip prison) 시찰**

##### **1. 시설 일반**

- 포트 필립 교도소는 G4S라는 다국적 보안관련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교도소로서, 1996년 준공되어 현재 수용정원 824명인 엄중경비 시설임
- 민간운영 교도소라고는 하나, 국영시설과 별다른 차이를 느낄 수는 없었으며 오히려 엄중경비 시설이어서 그런지 시설 참관시 가장 강력한 보안검색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됨
- 특히 마약관련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람에게 강한 바람을 쏘 후 공기성분을 분석하는 장비가 있었는데 상당히 고가라고 소개하여 마약 탐지견을 쓰는 것이 좋지 않냐고 묻자 마약탐지견의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탐지 능력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앞으로 마약사범을 집금하는 시설이 생긴다면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 되었음

- 방문 일정이 오후로 잡혀 있어 우리를 위해 샌드위치를 준비해 주었는데, 연어 샌드위치 등 상당히 괜찮은 음식을 제공해 줘서 외국기관 방문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소장을 포함한 직원들도 군인처럼 단정하고 엄격한 인상을 보였지만 따뜻하고 자상하게 열심히 설명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음
- 시설 구조 역시 앞서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모든 시설이 중앙 통제 센터와 연결되어 중앙을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한 형태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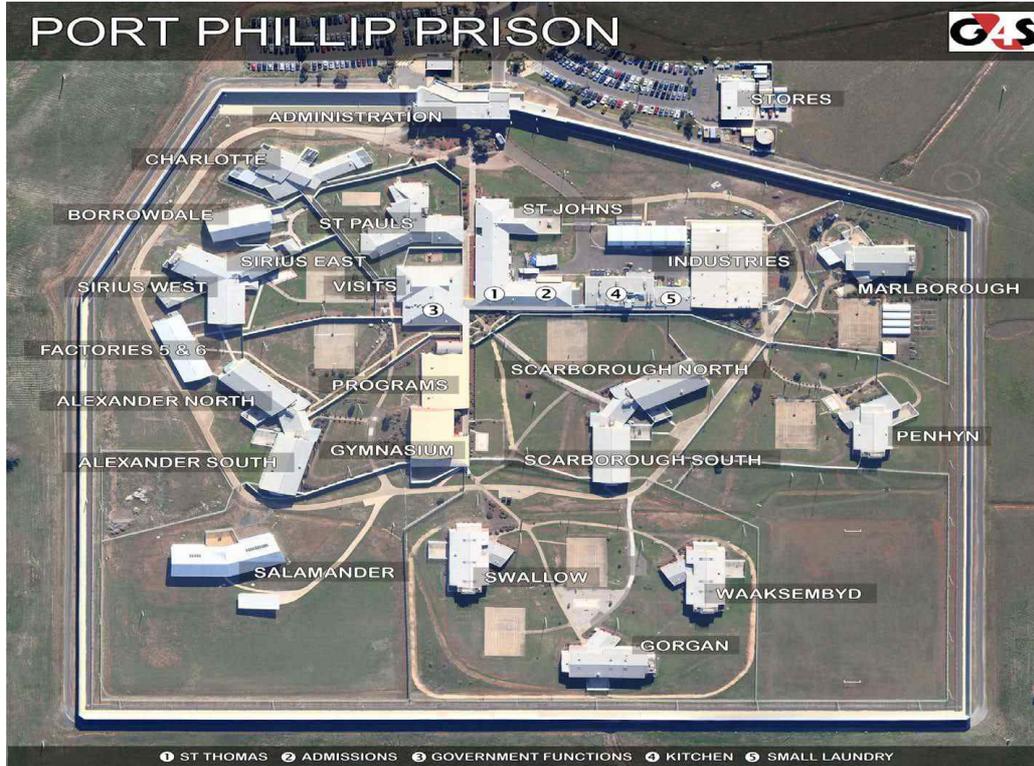
<시설 내부>



<시설 형태>



<시설 내부 구조>



< 소장 이안 토마스 와 함께 >



## 2. 의료 처우

- 의료 처우의 경우에도 이전에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용자가 신입 되어 들어올 경우 철저한 사전 검사를 통해 분류하여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한다고 대답하였고, 시설 수준 역시 병원과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었음
- 의료과 시설을 소개하는 직원도 나이가 비교적 많아 보였는데, 소개 도중 수용자 한 명이 기절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모든 직원들이 신속하게 달려가서 조치를 취하는 등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 의료과 시설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여성 직원이 상당수 있었는데, 수용자라서 대하기가 부담스럽다는 답변보다는 환자로서 대하고 있다고 있다며 자신의 일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수용자에 대해 다양한 심리치료도 병행하고 있었으며, 미술치료를 하면서 수용자의 그림을 게시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어 교도소를 시찰한다는 생각보다 병원을 방문한다는 생각이 들었음
- 수용자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역시 체육시설을 방블케 할 정도였고 잔디로 된 공간이어서 정신 건강상 좋겠다는 생각과 한편 죄 지은 수용자에게 너무 잘 해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음
-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수용자에게 너무 잘 해 주는 것 같아 “일반 국민들의 정의 관념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유의 구속을 받고 있는 것이 가장 고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함
-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단지 자유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충분한

죄값을 치른다는 생각은 여전히 들지 않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형벌이 가혹하든 혹은 경미하든 항상 저지른다고 보아 환자로서 치료의 객체로 보는 현대 교정행정의 이념이 잘 구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

## V. 맺는 말

○ 평소 해외 교정 행정에 관심이 많아 인터넷을 통해 여기저기 기웃거리러 보기는 했지만 역시 외국 교정현장을 직접 다녀 오니 온 몸으로 느낄 수 있고, 이해되지 않던 부분도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음

○ 호주 교정기관 중 극히 일부인 3개 기관을 보면서 전부를 알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역시 많은 발전을 하여 굳이 외국을 부러워 할 만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배울 점이 있다면 그들이 교정행정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 근무태도 등에 있다고 생각함

○ 그들은 수용자에 대해 일정 구역 내에서 비교적 행동의 구속은 하지 않았고 수용자를 환자로 바라보고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으며, 군대식의 복종문화로 질서를 잡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가 문란하다는 생각보다는 수용자들도 일정한 선을 지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는 호주 사람들이 매뉴얼에 따라 융통성 없이 업무수행하는 태도에 따른 것으로 생각함

온화한 태도로 수용자를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한편 규율위반과 관련해서 단호한 태도로 집행한다고 대답하였고, 우리를 안내하는 가이드 역시 호주 사람들은 단순한 요리를 해도 레시피를 따라 그대로 하지 우리처럼 융통성을 발휘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국민성을 알 수 있었음

- 또한 여성 교도관 역시 교정시설 내에서 훌륭하게 전문가로서 동료로서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은 정말 이채로웠는데, 우리의 경우 여성 교도관이 남자 수용 사동으로 출입할 경우 남자 교도관이 계호를 해야 하기에 인력이 더 소모된다고 불평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이 당연한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음

물론 일선교도소에서 직접 근무할 때 남자직원들도 수용자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하는 것이 다반사였고 오물 투척을 당하는 등 별의별 험한 꼴을 겪는 것을 자주 봤기에, 과연 그런 상황을 여성들이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향후 남자 직원들도 보다 시설과 제도적인 측면해서 안전해 질 수 있다면 남녀 같이 근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

- 끝으로 우리 팀은 단장님을 비롯하여 단원들이 전부 일선 현장에서 수 십년간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 총무인 저로서는 여러모로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들 직장 상사가 아닌 형님처럼 격의 없이 대하여 주셔서 좋았고, 이 모든 경험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교정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교정행정에 접목할 기회가 있다면 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